

## 20가지 복음의 망대를 실현한 70인 제자 빌레몬

-복음으로 여는 빌레몬서-  
창세기 12:2-4, 빌레몬서 1:1-3

정윤돈 목사님

\* 창12:2-4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 몬1:1-3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밧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지속적인 응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행복하고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 237나라와 5천 종족 살릴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얻고 복음과 교회와 후대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생명을 걸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있는 성도는 말씀으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나와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이 나라와 현장을 두고 응답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과 빌레몬에게 주신 본문을 읽었다. 아브라함과 빌레몬은 말씀과 복음으로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가문과 그 지역에 세계복음화를 위한 20가지 성경적인 전도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특히, 아브라함은 너는 복의 근원이라 하신 근원적 축복, 자부심을 가지고 대표적 축복, 시대를 살릴 시대적 축복,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불가항력적 축복, 기념비를 남기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70인 제자들이 되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들도 이분들과 같은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야 하겠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노예와 포로, 속국이라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만들어 가신다. 어느 날 믿음이 좋아지거나 공부가 잘해지거나 되는 게 아니다. 새가족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어떤 한 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책이나 역사에 나오는 공룡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공룡 때문에 신앙생활을 접는다. 제가 성경에도 공룡이 나온다고 알려줬다. 저도 고민 중 하나가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이 멸망하고 노아의 부모와 세 자녀로만 인류가 다시 시작했는데 백인, 흑인, 황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고민이었다. 그러다가 창조과학자들을 통해서 그게 어려운 고민이 아님을 알았다.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 흑인, 적으면 백인이 되는데 완전 순수한 백인과 흑인이 만나면 중간색으로 태어난다. 이걸 보고 ‘혼혈 갈색’이라고 한다. 혼혈 갈색은 다양한 색이 나올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노아나 노아의 부모,

자녀 중의 한 사람이라도 혼혈 갈색이라면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아담은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혼혈 갈색인 것이고, 그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하와도 혼혈 갈색이다. 노아의 방주 안에는 모든 유전자를 가진 동물 한 쌍만 들어갔다. 왜 선한 것은 일곱 쌍을 넣었을까? 제사를 지내고 먹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일곱 쌍이고 나머지는 한 쌍만 넣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알면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진화론 과학은 증거가 없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후대를 다 망치고 있다. 미국은 정신병, 이상 천지가 되어버렸다. 개인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해결할 길은 복음이다. 복음이 없으면 사회도 망가지는 것이다. 그 시작이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를 아는 것이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은 머리카락을 가만히 놔두니까 예쁜 머리가 만들어진다는 논리다. 우리는 열역학 제1, 2법칙을 안다. 엔트로피 법칙은 지구에 모든 게 점점 더 나빠진다는 말이다. 가만히 놔두면 깨끗해지거나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무언가가 재창조해야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영혼과 생각도 계속 청소를 해줘야 한다. 우리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말씀과 예배로 깨끗하게 해줘야 한다. 신앙생활 안 하면서 착할 수 없다. 가만히 놔두면 더 나빠진다.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상한 곳으로 가게 된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거나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 그걸 전하는 게 전도다. 여러분들이 그 사망자로 아브라함과 빌레몬처럼 쓰임받기 바란다.

오늘은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는 개인적인 편지이다.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의 노예였다. 아킵보라는 노예와 함께 에베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서 로마로 도망가고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다. 감옥다락방이 시작되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다. 빌레몬의 집은 골로새교회가 된다. 그러나 이 빌레몬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고 20가지 전도운동을 통하여 개인과 제자와 현장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킨 비밀들이 담겨져 있다. 빌레몬은 20가지 복음의 망대를 사실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실현한 그리스도의 제자였다.

### 1. 빌레몬서의 내용을 보면서 그 배경과 영적인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빌레몬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였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한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면 여러분들은 계속 복음전하시겠냐.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고문당하고 감옥가고 화형당했다. 우리도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한다. 예수 믿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예수 믿어서 고문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하는 현장 많다. 네덜란드 현장도 마약 투성이다. 완전히 타락하고 동성애가 강한 현장이다. 기독교를 무시하면서 망해가고 있는 현장이다. 복음 가진 사람 한 명 밖에 없다. 참 복음을 가진 교회가 유일하게 살릴 수 있다. 일본도 복음 가진 램네프가 살릴 수 있다. 한국도 복음 전하지 않으니 사람을 죽이고 칼부림이 난다. 누구 책임인가.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치유해야 할 사람을 치유하지 않으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저는 아오이 짱을 보면서 아오이 짱이 일본을 살릴 수 있는 제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엘리트 기질이 있는 것 같다. 곳곳에 그런 제자를 찾아야 한다. 여러분의 제자와 여러분의 자녀가 그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 다른 것들을 다 양보하면서 영원한 걸 양보하지 않기 바란다.

(2) 계속해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의 사랑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다. 산업선교, 전문인선교가 이런 것이다. 예수를 믿어 흉년인데 이상하게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어디를 가든 복을 받고,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어진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 목회자가 왔을 때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 보여야 한다. 적들도 요셉과 일곱 램넛트들을 복의 근원으로 봤다. 이게 진짜 응답이다. 예수를 대충 이상하게 믿지 마라. 그 정도가 아니다. 여기 보면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대단하다. 바울과 전도자들이 우리의 사랑받는 자, 동역자라고 했다. 에베소에서 훈련을 받고 변화된 중직자 빌레몬은 단순한 성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과 모든 전도자들에게 '사랑 받는 중직자'였고,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집에서 교회까지 개척한 중직자였다. 1장 2절에 등장하는 '아킵보'라는 이름은 '마부'라는 뜻이다. 이 '아킵보'라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들은 몇 가지를 유추할 수 있다. ① 빌레몬은 자신이 사는 골로새에서 에베소까지 말을 타고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다. 마부는 '말을 키우는 노예'라는 뜻이다. 이런 마부가 제자가 되었다. ② 그리고 중이며 마부였던 '아킵보'는 주인인 빌레몬을 따라다니면서 에베소의 두란노서원에서 함께 훈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팀사역과 포럼을 하다가 결국에는 전도제자가 되었다. 오네시모도 마부 비슷했을 것이다. 아킵보는 골로새에서 에베소까지 가고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오네시모는 불평을 했던 것 같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느 순간 터진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오네시모는 감옥까지 갔다. 우리에게는 아킵보의 길도 있다. ③ 그 증거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킵보'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킵보"라고 말하고 있다. 군인이 아니라 '진리의 병사'라는 뜻이다. 노예였는데 전도자의 대열에 섰다. ④ 아킵보는 에베소에서 합숙, 전도신학원, 집중훈련, 신학교육, RTS, RU 교육까지 자연스럽게 받게 된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아킵보는 목회자요 선교사가 되었다. 결국 이들은 한 팀이 되어 빌레몬의 집에 교회를 설립하였던 것이다. 이 교회가 골로새교회다. 그 증거가 바로 1장 2절에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는 내용이다. 복음으로 결론 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가정과 직장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다. 제가 운동하는 곳 코치님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세상 노래를 안 듣고 찬송가만 듣는다고 하더라. 중고등학교 수련회의 은혜가 기억난다고 했다. 나중에 신앙생활을 안하더라도 이전에 수련회를 가고 했던 게 나중에 기억난다. 그러면서 가정이야기를 했다.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살릴 사람이 있다. 그게 지교회와 미션홈이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같이 훈련받은 오네시모라는 좋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피해를 주고 로마까지 도망갔다. 그런데 우연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거기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과의 집중 감옥다락방과 감옥팀사역을 통하여 이제는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여러분이 스스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노예다락방, 포로팀사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3)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의 내용은 빌레몬에게 거듭난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받아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네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지금 읽은 내용 중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다. 위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들은 여러 가지 소중한 영적인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다.

## 2. 성경적인 20가지 전도운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가지 전도운동은 5기초, 5훈련, 5시스템, 5미래가 있다.

- (1) 5기초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이고,
- (2) 5합숙 훈련은 기본적인 복음을 아는 기초합숙, 전도의 문을 여는 방법을 알려주는 팀합숙, 진정한 제자와 중직자의 모습을 알려주는 70인합숙, 전문인들이 전문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팀합숙, 진정한 복음에 결론난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는 전도합숙이다.
- (3) 5가지 시스템은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훈련원, RTS, RU이고,
- (4) 5가지 미래는 엘리트사역, 문화사역, 산업선교, 치유사역, 램넛트사역이다. 엘리트사역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 엘리트같은 성품의 사람들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엘리트가 중요하다. 여러 가지 전문분야를 만들어야 한다. RUTC가 문화사역이다. 메시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이걸 실천하고 있다. 우리 교단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이러한 20가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하여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이 거듭나고 변화된 많은 제자들과 중직자들과 램넛트 후대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절대제자로 세워지고 있다. 바로 이 20가지 시스템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대망대이다. 우리들도 우리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 자연스럽게 성령인도를 받으면서 이 20가지 절대망대를 세워나가야 하겠다.

오늘도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 (1) Covenant. 언약과 복음의 24망대이다. 빌레몬은 오직복음 시스템으로 자신과 오네시모와 골로새지역을 거듭나게 만들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의 망대를 세웠다.
- (2) Vision. 25비전망대이다. 우리들은 20가지 성경적인 전도시스템을 통해서 237나라 5천 종족들을 빌레몬과 오네시모처럼 변화시켜야 하겠다. 어떤 분이 단체에 여러 가지 이름이 많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냐고 하는데 일을 많이 하면 이름도 많아지게 된다. 일을 안 하면 이름도 필요 없다. 많은 응답을 받으면 많은 이름이 필요하다. 뭐든지 도전해라. 모든 현장을 전도의 망대로 세우기 바란다.
- (3) Dream. 영원한 드림망대이다. 만약 우리들이 24시간동안 20가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세우기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전도, 복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세상에서는 모든 걸 가지고 타락하지만, 교회 안에서 다 하면 된다. 여러분이 주역이 되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다 바꾸고 살리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진짜다.
- (4) Image. 공중권세를 장악할 이미지망대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위해 조금만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 (5) Practice. 실현의 망대이다. 주일강단을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디라도 내 마음과 영혼에 심는다면 현장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끝으로 오직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에 올인해서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은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빌레몬서를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현장에 응답을 받은 배고픈 선교사님을 천만 배 축복해 주시고 사실적으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